



학도넷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22년 9월 15일 | 총권 57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다락골길 164-24 | 전화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은 확대되어야 한다

청량한 가을 하늘이 보이는 창가에 학생들이 만든 책이 쭉욱 진열되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시가 백창우의 노래로 흐르는 교실에 웅기종기 모여 앉은 학생들이 책상 위 가득 시집을 펼쳐두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를 읽는다. 1시간 동안 내내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시집을 읽는다. 그리고 이후 4시간 동안 친구들과끼리 역할을 정해 모둠에 맞는 모양과 주제의 애송시 감상집을 엮는다. 사랑에 관한 시집, 별과 바람이 있는 시집, 청소년의 이야기가 있는 시집, 슬픔과 그리움의 시집 등 등 다채로운 시집들이 완성되어 다음 달 창가에 전시된다. 스스로 만든 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얼굴은 가을 햇살보다 빛난다.

이런 수업이 가능한 공간은 어디일까? 단연코 학교에서 가장 평화로운 공간, 학교도서관이다. 이 모든 수업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한 학기 한 권 읽기'란 명칭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독서교육을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선생님들은 그 이전부터 국어과 진도를 조절하여 어떻게든 수업 시간에 한 권의 책을 온전히 읽히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모든 국어 교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교과서에 실린 쪽글을 읽고 글의 주제를 찾고 내용을 파악하여 정답을 맞히는 수업이 많았다.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국어과 교육과정에 정식으로

채택되고 교과서 한 단원이 온전한 책 한 권을 읽고 활동하는 수업으로 설계되면서 국어 수업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전에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고민했다면 이제 '무슨 책을 고르고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마다 다른 교육과정이 등장하고 그 내용이 각자의 학교 상황에 맞게 학생 눈높이로 변주되고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신명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202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가 학문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빠질 것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실천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교육과정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잘 자리 잡게 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서구에서 들어온 교육 이론과 맞지 않는다고 배척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관련된 책들과 논문들을 보라.

어느 사회나 기본을 무시하면 근간이 흔들리는 법이다. 독서교육의 기본은 독서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즐겁게 책을 읽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쓰는 과정에서 생긴 힘으로 평생 독자가 되어 미래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일이다. 그 바탕에서 국가교육과정은 논의되어야 한다.



송경영 | 서울 사당중학교 국어교사 / 전국학교도서관교사모임 대표 / 학도넷 공동대표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05_ 내가 권하는 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신계숙, 목선철
08_ 학도넷 소식	
<p>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과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p> <p>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p> <p>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p> <p>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시오. www.hakdo.net</p>	
<p>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p> <p>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p>	

진심은 통한다

- 구미숙(화성 하길중학교 사서교사)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불편을 겪게 되는 날이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학교에서는 1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그 학생이 포함된 학급은 물론이고 경유지에 있는 학급까지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 동학년에서도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으로 나뉘어 수업이 진행될 만큼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원격 지도로 학습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대면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수업력을 유지 시키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도 힘겨웠다. 사회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부족한 병상 여력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과 온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단계를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면서도 감염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었다.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출입 인원의 제한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힘든 목소리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발표도 이어지고 있었다. 새롭게 델타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또다시 혼란이 가중될 것 같은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유지 시키기 위한 도서관 현장에서의 노력은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은 잠시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더니 다시 기승을 부린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등교가 이루어지던 시기에 도서관에 자주 오던 학생과 있었던 일이다.

“진아 왔구나. 어서 와라”

인사하는 진아를 향해 내가 이름을 부르며 반긴다. 이 즈음 도서관은 반폐가제로 전환되어 도서 대출은 예약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학교생활에 바쁜 중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자주 도서관을 찾기는 어려운데 출입마저 원활하지 않으니 방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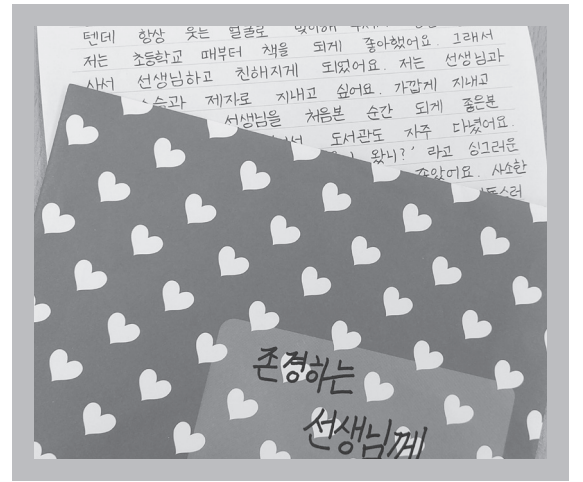
는 학생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그중에 한 명이 진아다.

이 학교 근무가 처음이고 학기 초부터 마스크로 무장한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가끔씩 오는 아이들을 구분해서 알기는 쉽지 않았다. 그중에 지속적으로 책을 빌려 가는 학생이 있었으니 바로 진아였다. 자주 도서관에 오다 보니 멀리서도 알아 볼 정도가 되었다.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지 않으니 오는 학생이 반가워서 이기도 하지만, 자주 오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불러 반기게 된다. 찾아줘서 반갑고, 책을 읽는 것이 예쁘고, 보고 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니 좋았다. 그런 학생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이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어느 날 진아가 편지글을 써서 나에게 준다. 올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러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 너무 좋았단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예쁜 내용의 글이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것에 그런 마음을 보태 주니 너무 고맙았다. 내 행동에 대해 극찬을 받은 것이다.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닌데 진아에게 감동이 되었나 보다.

그런데 그런 진아가 올 때마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갈 때는 나를 향해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한다.

수고는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어원을 갖고 있어서 아랫사람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말로 알고 있었다. 진아가 어떤 마음을 담아 하는 인사인지 아는지라 귀에는 거슬리나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진아가 갈 때마다 그 말로 인사를 한다. 이걸 어떻게 말해서 고쳐줄까 고민이 되었다. 직접적으로 그 인사에 대해 언급하게 되면 혹시라도 부끄러워하거나 도서관을 멀리하게 될까 봐 조심스러웠다. 아직 어린 나이이니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접할 일이 많은 진아를 위해 기분 상하지 않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방학을 마치고 진아가 여전히 활기찬 모습으로 도서관을 찾아온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같은 인사말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아를 위해 내가 선택한 방법은 ‘수고’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 관련 내용을 인쇄해 놓고 돌아가는 진아에게 선물이라며 전했다. 선물이라는 말에 감격하며 과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며 고마워한다. 혹시 선물에 실망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진아가 되돌아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제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살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게 아닌가.

나 역시 그 말에 “선생님의 마음을 알아주니 정말 고맙다”며 서로 주거나 받거나 칭찬이다. 흐뭇하다.

나의 좋은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알아주니 얼마나 좋은가. 그 이후에도 입에 익은말이라 몇 번이고 그 말을 더 듣게 되었지만, 지금의 진아는 자기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던 그 인사말을 다른 말로 바꾸었다. 잘못을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조언이라고 기분 좋게 받아들인다. 진아의 모습에서 우리 학생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받아들이면서 밝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원해 본다.



명상 수업으로 행복해지기

- 신계숙 (부천시초등학교 교사)

명상이란 '깊이 생각하다, 묵묵히 생각하다' 등 마음이 또렷하게 깨어있으면서 신체는 이완된 상태를 말한다. 명상 중에는 알파파(α)라는 뇌파가 나오는데 알파파는 긴장을 풀고 마음이 평온할 때 나오는 뇌파로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명상 중에 두드러지게 관찰된다.

오늘날의 학교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아이들은 서열화 되어 있는 입시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게 되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 최근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따돌림, 청소년 우울증 및 자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나는 초등학교에서 이십여 년을 근무하면서 웃음이 사라진 아동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있는 그대로 소중하고,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고심하였다. 그러다 평소 애용하고 있던 명상을 아이들에게 접목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체험하였다.

우선 수업 전 3분 짧은 명상을 통하여 차분하게 집중하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또한 명상을 미술, 국어, 체육 등 전 교과 교육과정에 재구성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학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학교의 화단을 걸으며 발의 감각에 집중하고 오감을 통하여 꽃과 대화하고 느끼고 걷는 걷기 명상, 자동으로 먹어왔던 행위에서 하나하나 먹는 행동을 알아차리고 의미를 부여하며 먹고, 먹거리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고마운 마음까지 알게 하는 먹기 명상, 자연의 바람이나 꽃의 모양을 흉내 내고 음악에 맞추어 자신의 스트레스를 한껏 푸는 춤 명상, 편안히 누워서 자기의 몸 구석구석 여행을 떠나는 몸 살피기 명상 등 점점 행복해지고 활발해지는 아이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명상하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한다.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한 명의 아이들에게라도 더 행복을 알려주기 위해 명상을 열심히 활용하였다. 명상은 별다른 준비 없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 생각된다. 선생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현대의 명상은 가부좌하고 한곳에 앉아서 하는 명상이 아니다. 걸어가면서, 먹으면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활동성 명상이 대세이다. 수업 전 짧은 명상음악을 들려주어도 되고, 상상으로 숲길을 걸거나 바닷가를 걷도록 안내만 해도 아이들은 행복해한다. 순수한 아이들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놀랍다.

교실에 앉아서 숲을 걷고, 바닷가를 여행할 때의 평화로운 얼굴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행복한 아이들은 화를 내지 않고 친구 사이에 갈등도 잘 조정한다. 명상은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예방 교육과 인성 지도에도 좋은 도구라 생각된다.

이렇게 이십여 년간 했던 명상 수업의 경험과 자료를 많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다. 명상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행복해질 수 있는 수련이라 생각된다. 나도 명상을 만나기 전까지는 기준이 타인의 관점에 맞춰져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을까? 불행했었다. 명상하면서 눈을 나에게 돌리니 내 안에 있는 그대로도 괜찮은 내가 보이기 시작했고 작은 것의 의미를 두고 바라보니 모든 것이 행복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마음이 풍요로워지니 너무 행복해졌다.

교실에서의 명상 수업 중 '행복 명상'을 했을 때 아이들이 행복해지던 얼굴이 떠올라 수업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 수업 도입 : 복식호흡 / 음악 명상으로 시작
- 허리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 마음은 편안하게,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다.
-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붙이면서 배에 공기를 넣어 부풀어 오르게 하고, 내쉬는 숨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숫자를 붙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배에 공기를 다 내보낸다. 세 번 반복한다.
- 명상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이완한다.
- 수업 전개 : 눈을 감고 진행자의 멘트를 따라 오감을 느끼며 바닷가를 걷는다

<바닷가 명상 진행자 멘트>

나는 지금 꽃들이 피어 있는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적당한 햇볕이 따뜻하게 나를 비추고 멀리 보이는 푸른 바다는 너무 평화롭습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에 들립니다.

(파도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부드러운 바람이 내 뺨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바람의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 보십시오)

파란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평화롭게 흘러갑니다.

(하늘의 구름을 시각화합니다.)

이따금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갈매기 소리가 귓가에 들립니다.

따사로운 햇살은 나를 포근히 감싸줍니다.

아! 나는 너무 평화롭습니다.

나는 너무 편안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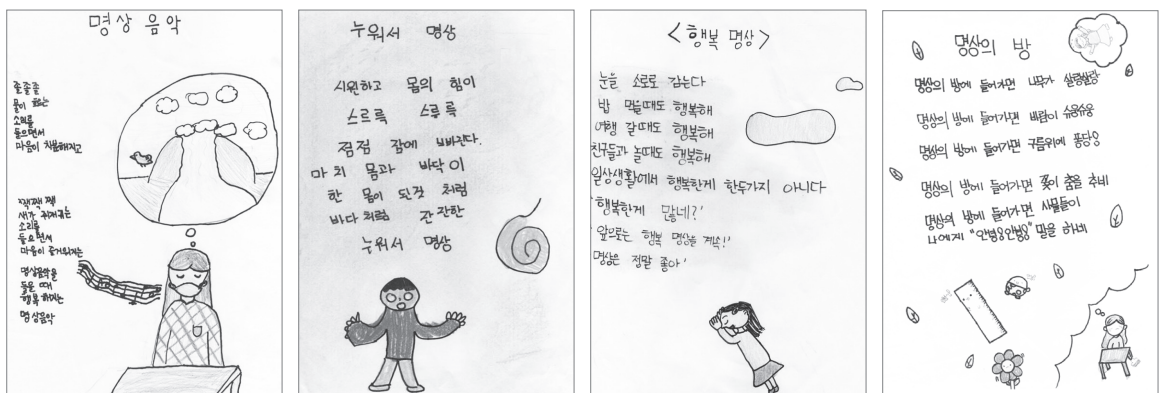
편안하고 행복한 기분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행복을 오감으로 느끼며 행복한 기분을 오래오래 즐깁니다.

명상이 끝나면 천천히 눈을 뜨고 교실로 돌아옵니다.

※ 장소에 따라 '바닷가 명상' '꽃 명상' '숲 명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 뇌는 행복한 상상만 하여도 기분이 좋아지는 호르몬을 내보낸다. 뇌는 상상하는 것과 실제 경험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상상만 해도 실제 경험한 것처럼 느낀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행복했던 순간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아이들이 먹기명상, 걷기명상, 몸 살피기 명상, 춤 명상 등 여러 가지 명상을 접하면서 행복해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명상을 통해 장면을 상상하고 자신의 느낌을 시로 써보는 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은 시인이 다 되어 있었다. 한명 한명 쓴 시가 아이들이 명상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전해와 나도 행복했다. 이제 정년을 맞아 남은 세월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명상 전도사가 되고자 한다. 아이들의 보석 같은 시화를 소개한다.



2022 학도넷 여름연수에 참가하신 선생님들의 추천책

2022 학도넷 여름연수 주제는 반전과 평화, 그리고 공존이었다. 파주 평화를 품은 집에서 만난 제노사이드 역사 자료관은 가슴을 무너지게 했다. 대량 학살 사건을 녹여낸 책들을 만나고 전쟁과 평화, 자연과 환경, 인권과 권리, 왕따와 다문화 등, 평화에 가장 밀거름이 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깨닫게 하는 책들을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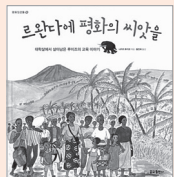


제무시

임경섭글/ 평화를 품은책/ 44쪽/ 2017년 1월

까만 트럭이 나를 향해 비춘다. G.M.C 트럭이다. 지엠시의 발음을 쉬운 형태로 말한 변이가 책 제목이 되었다. 트럭은 '나는 그날의 밤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한국전쟁 중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이라는 불명예를 가졌다. 이 책은 그때 이유도 모르는 사람들을 학살 현장으로 실어 나른 트럭의 입장에서 썼다. 간결한 선과 짧은 글로 던지는 묵직한 주제의 그림책이다. '용기'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 채현하(광명 하안북중학교 사서)



르완다에 평화의 씨앗을

나카지 후키코 글/ 황진희 옮김/ 품고출판사/ 32쪽/ 2014년 4월

아프리카 르완다에 태어나 학교 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알았던 루이즈. 1994년, 르완다에서는 100일만에 80만명이 목숨을 잃은 끔찍한 대 학살이 일어난다.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살아 있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믿음으로 배움을, 나 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가 끝끝내 살아남아 조국에 학교를 짓는 이야기는 크나큰 울림을 남긴다. 교육이 평화의 상징임을 루이즈의 삶을 통해 몸소 보여주는 책이다.

- 강유진 (서울 수명고등학교 사서교사)



나무도장

권윤덕 글·그림/ 평화를 품은 책/ 60쪽/ 2016년 2월

시리는 11년 전 엄마를 잃었다. 1947년 관덕정에 충성

이 울리고, 제주도민 열 명 중 한 명이 죽었다. 무자비한 학살을 피해 동굴에 숨어 지내다 살려준다 말만 믿고 나온 이들, 그중에 시리를 품에 안은 엄마도 있다.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치마폭을 꼭 잡은 손에 마음이 머문다. 죽음 직전, 이 작고 여린 손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나무 도장을 쥐어 준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머니, 그럼 나도 빨갱이예요? 빨갱이가 뭐예요?" 4.3사건 희생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 물음이 나무도장의 각인처럼 붉고 선명하게 맺히는 그림책이다.

- 이민수(서울 삼정중학교 교사)



관계

안도현 글/ 이혜리그림 /계수나무/ 44쪽/ 2006년 11월

어느 가을날, 갈참나무에서 도토리 가 툭,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도토리 모든 게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때 낙엽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낙엽은 도토리를 따스하게 품어주고, 동물들의 눈에 띄지 않게 도와줍니다. 도토리는 힘든 시간 낙엽과 함께 조금씩 성장합니다. 과연 갈참나무가 되고 싶은 도토리의 꿈은 이뤄질까요? 책을 통해 내 주위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성장이야기입니다.

- 박세지(용인 보라중학교 사서교사)



나는 아직도 아픔니다

최유정글/ 이흥원그림/ 평화를 품은책/ 56쪽/ 2015년 5월

흔히 그림책하면 귀여운 그림과 짧은 글씨체가 있는걸 우리는 그림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수 많은 글들을 보면서 좀 당황했다. 하지만 그 당황스러움은 길게 가지 않았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배경으로 한 아이가 아재로 성

장하기까지 평생 잊지 못할 아픔을 그린다. 한국의 민주화를 이끈 아픈 그림책이다. 정호의 형 성호 덕분에 현재의 나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굳굳하게 살아가 보련다.

- 홍성림(성남외국어고등학교 사서교사)



전쟁을 평화로 바꾸는 방법

루이즈 암스트롱 글/ 서현 그림/ 서애경 옮김/ 평화를 품은책/ 32쪽/ 2015년 7월

수지와 '너'라는 두 아이가 각자의 모래성을 '소유'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작가는 두 아이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다툼을 국가로 확장시키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들려준다. 누구라도 흔히 겪을 수 있는 두 어린이의 다툼이 침략과 동맹 관계를 지나 중재를 거쳐 상호 무장을 해제하게 된다. 결국 둘 사이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 임경희(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저자)



운동화 비행기

홍성담글·그림/ 평화를 품은책/ 44쪽/ 2017년 6월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께서 사 주신 새 신을 신고 하늘을 날듯 기뻐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우리의 설레고 신나는 마음을 '운동화'에 담고 있지만, 한편으론 역사의 슬프고 아픈 마음을 함께 그려내고 있는 작품입니다. 5.18 민주화 항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열두 살 주인공 '재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그날의 이야기를 위로하듯 풀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운동화를 신고 떠던 '재날'이가 이제는 민주와 평화라는 꿈을 위해 하늘로 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 작품을 풀어봅니다.

- 강희경(이천 마장고등학교 사서교사)

환타지, 성장, 환경동화

굿바이 바이러스, 굿바이 코로나!

안재희 글 | 맑은소리맑은나라 | 148×210mm | 176쪽 | 13,000원 | 초등 고학년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침략으로 지구촌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 속에 숨죽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작가는 공존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소리친다. "굿바이 바이러스,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바이러스 굿바이 코로나는 동화다. 이 책은 영화같은 현실을 동화의 세계로 옮겨놓았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루한 전쟁, 언제 코로나에 걸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두려움, 공포를 동화의 세계로 끌고 가서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을 열어 놓는다. 그리고는 유쾌하게 굿바이 바이러스 굿바이 코로나를 외치면서 코로나를 불러들인 과거의 문제들을 통해 사라질 줄 모르는 코로나를 물리칠 방법을 선물한다.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코로나를 이겨낼 면역력이 생겨난 것 같다. 그러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 변화를 느낄 때 우리에게 행복한 내일이라는 미래의 환타지 세계로 문을 열어준다. 동화책 한 권이 주는 힘이 참으로 크다. (어느 독자의 리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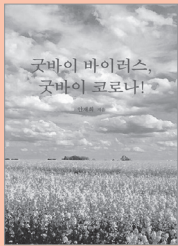
공존의 기쁨!!

코로나를 물리치는 진정한 백신은 공존의 기쁨!

그 기쁨의 에너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치유의 에너지다.

그 신비한 백신 에너지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있다.

내가 권하는 책



굿바이 바이러스, 굿바이 코로나

안재희 글 / 맑은소리맑은나라
176쪽 / 2022년 7월

유채꽃이 펼쳐진 배경에 <굿바이 바이러스, 굿바이 코로나!>를 선물로 받았다. 여전히 코로나 시국이라 그런지 제목이 더 눈에 들어왔다. 작가 이름이 눈에 익는다 했더니 <송례문에서 사라진 어처구니>을 쓴 안재희 작가의 책이다. 총 15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친구들은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겠다.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 환경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성장 판타지이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 책 주인공 환희의 부모님은 인도에서 학술연구 중 코로나 확진을 받고 연락 두절이 되고, 걱정과 불안감에 환희의 일상생활은 흔들린다. 이를 보다 못한 할머니의 권유로 제주도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 신비로운 소녀 해인을 만나 백신을 구하러 환상 여행을 떠난다. 황폐화 된 햇살마을 비롯해서 환경문제,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물고기와 동물들을 만나면서 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는다. 유령 가족에 쫓기는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환희는 해결책을 찾는다.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햇살마을을 복원시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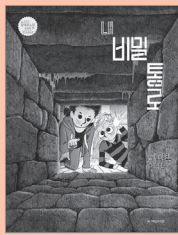
작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이 훼손하면서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 그리고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말한다. 그 해결은 '공존의 기쁨'이라며 실천을 이야기한다.

책 속 등장인물의 대사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지, 하지만 가능하면 모든 대상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라"에서는 불교의 가르침도 엿볼 수 있다. 백신이 흰 고무신이라던가, 모든 게 연결되는 우주폰, 살처분된 동물이 유령 가족 되어 나오는 장면 등은 작위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바이러스와 구제역 지구온난화 등 현시대의 문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며 풀려고 한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요즘 5살이 된 우리 아들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만 보면 "엄마, 지구 아파!"하고 이야기한다. 우린 유치원에

서부터 배운 환경오염이나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얼마나 고민하고 잘 실천하고 있을까? 결국 돌고 돌아 우리에게 오는 문제이다. 이 책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던져주는 묵직한 메시지가 있는 책이다. 코로나 시국에 나는 무엇을 할까? 각자 과제가 생겼다.

- 채현하(광명 하안북중학교 사서)



내 비밀 통로

막스 뒤코스 글·그림 / 이주희 옮김
국민서관 / 64쪽 / 2022년 7월

평화를 품은 집이라는 도서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곳 1층에는 똑바로 일어서서는 절대 들어가 볼 수 없는 낮게 만들어진 책 읽는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 앉아야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지요. 그곳에 들어가 앉으니 웬지 모르게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많은 도서관에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미로 같은 공간, 다락방 혹은 딱 한 명만 들어가 숨을 수 있는 작은 텐트 같은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작고 아담해서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을 높이기도 하고, 혼자 있다는 편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숨바꼭질하는 듯한 비밀스럽고도 흥미로운 공간으로 아이들이 즐겨 찾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막스 뒤코스의 <내 비밀 통로>는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작고 비밀스러운 공간을 따라 흥미진진하면서도 따뜻한 가족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따라가게 합니다.

2022년 랑데르노상 그림책 부문 수상작인 <내 비밀 통로>는 표지에서부터 네모난 구멍을 만들어두었습니다. 마치 진짜 통로로 들어가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요.

이 책은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찾아간 손자 손녀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는 날이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서 심심해하던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재밌는 일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밀 통로를 집안에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아이

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라 2층 할아버지 방, 욕실, 서재, 지하실 등 이곳저곳을 탐험하며 그곳에서 발견한 것들을 꺼내 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비밀 통로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통로로 들어가는 시간은 어쩌면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누는 통로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도 이 책과 함께 추억의 비밀 통로를 찾아가 보기 바랍니다.

- 박현주(의정부 청룡초등학교 사서)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

강병철 글 / 최경식 그림
그레이트북스 / 116쪽 / 2021년 6월

바이러스의 기원과 정의에서부터 현재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초등학교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알려주는 책이다.

처음에 바이러스를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바이러스로 인해 바뀐 인류의 역사는 무엇이 있는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인간의 면역체계와 과학자들의 노력,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신종 바이러스들의 출현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재미있는 그림을 곁들여 쉽고 실감나게 풀어내고 있다. 또한 미생물, 세균, 바이러스 등 헛갈리기 쉬운 개념도 적절한 비유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과 후로 나누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상황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건강하고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기울여야 할 노력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해 준다.

의사인 저자는 '우리 인간은 너무 똑똑하고,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진정 무엇이 중요한지 깊이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중단한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겁니다.'라는 말로 더 이상 방관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 안경애(강화 대월초등학교 사서)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교사

평범한 일상에서 DMZ까지

- 학도넷 여름사서연수를 함께하다

신계숙(부천시초등학교 교사)

참으로 오랜만에 나서는 나들이다. 코로나로 근 2년간 여행다운 여행을 해보지 못했는데 파주에서 DMZ 깊숙한 곳까지 탐사하는 이번 연수는 소풍 전날 설레던 초등학생처럼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잠을 설쳤다. 조금은 생소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킹을 통해 처음 만나는 선생님들은 궁금하고 반가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하고 합정역에서 밖으로 나오니 우리를 태우고 갈 빨간 버스 궁둥이가 살짝 보였다. 얼마만의 나들이인지 오늘은 버스도 반가웠다.

마스크를 쓰고 만나는 사람들의 처음 인상은 다 비슷비슷하다. 교실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을 보고 다른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 코로나가 가져다준 나쁜 피해 중에 하나다. 눈을 마주 보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빗방울이 간간히 내리는 창가의 풍경은 더 낭만적이다. 예뻐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이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녹색의 풍경은 편안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했다. 길가의 호박 넝쿨이며, 줄을 잘 맞추어 자라고 있는 콩밭의 모습이며, 키가 훌쩍 자라기 시작하는 옥수수의 생명력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었다.

한 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파주 '평화를 품은 집'은 이름만 보고 얼마나 평화로울까? 철없이 기대했던 나의 기대를 보란 듯이 부숴버리고 평화 뒤에 숨어 있던 아픈 과거들을 깨닫게 했다. 잊고 있었다. 무엇이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거저 온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도 누군가는 계속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고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평화

를 품은 집'을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다. 점심을 먹기 위해 DMZ 안에 자리한 식당에 가기 위한 절차는 '아~ 북한 접경지역에 와 있구나'를 실감나게 했다. 북쪽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인 다리를 건너기 전에 군인들이 버스에 올라와 주민등록증과 사람을 확인했다. 지금 여기서 나를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도구인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맡기고 나서야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해마루촌 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높은음자리를 기본으로 만들었다는 마을 해설을 해 주시는 식당 주인장을 따라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북한이 가깝다는 사실 외에 여기는 너무 평화로웠다. 마당이 아름다운 집들이 높은음자리 모형을 따라 너무나 평화롭게 모여있었다. '북한이 가까워서 불안하게 살 거야~~' 하는 나의 편견을 여지없이 깨버린 모습이었다. 오늘 '평화'라는 낱말이 계속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빙빙 돌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찾은 '평화를 품은 집'에서의 활동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이제 '평화를 품은 집'하면 알록달록한 보따리가 생각난다.

다른 데서 접해보지 못했던 '책 보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보따리는 옛날 할머니와 어머니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쌀 때 쓰시던 익숙한 도구이다.

보따리로 싸 놓으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몹시 궁금해서 살짝 풀어보았던 기억도 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보따리는 보면 호기심이 일어난다.

우리 모듬에게 온 보따리는 매력적인 보라색 책 보따리였다. 그 안에는 인권에 관한 그림책 세 권과 카드가 들어있었다.

활동하는 내내 마음은 벌써 교실에 가 있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 좋은 자료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지 가슴이 뛰었다. 다른 팀들의 알록달록한 보따리 안에서는 보따리 무늬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권, 평화, 차별, 법, 전쟁, 피해 등...

'책 보따리' 안에 우리 아이들의 젊어지고 가야 할 우리나라의 미래가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활동을 끝내고 저녁으로 푸짐한 개성만두를 실컷 먹고, 우리가 목을 '지지향'에 도착했다.

여기가 지혜의 숲인가? 수만 권의 책들이 '나 여기 있어'하고 우리를 맞이했다. '책은 이렇게 이제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었구나'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짐을 부리고 조금은 몽롱한 상태에서 들은 김승호 DMZ생태연구소장님의 강의는 환경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모든 것을 인간 중심에서 생각하고 별이는 자연환경 파괴를 말 못 하는 동물과 식물 입장에서 생각하게 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지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정신이 확 들게 하는 강의였다.

조금이라도 더 알려 주려고, 한 마리의 새라도 더 보호하고 싶어서 애쓰시는 김승호 소장님의 마음이 전달되었다. 내일의 DMZ 탐사가 더 기대되었다.

강의가 끝나고 '나만의 컵' 만들기 활동은 학생의 입장으로 돌아간 듯하여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려야 한다, 저렇게 그려야 한다, 가르치고 충고하고 했는데 내가 막상 그려보니 참 막막하고 말 대로 되지 않았다.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컵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재료를 제공해 주시고 현장에서 코칭하고 구워주시는 열정을 보내준 박현주선생님께 정말 고맙다.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기쁜 마음으로 나눠 주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아닌 일일 텐데. 봉사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남을 향해 즐겁게 봉사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나의 별칭은 들향이다. 들에 피어 있는 보라색 구절초처럼 사람들에게 은은한 향기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은 별칭이다. 컵에 내 모습과 꽃을 그렸다. 향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도 그랬다. 작은 컵이지만 각자의 생각과 이야기가 담긴 나만의 컵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 처음 날의 일정이 끝나고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누워서 복식호흡으로 시작하는 명상을 했다. 나는 아침마다 바로 일어나지 않고 이불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열림을 온몸으로 느껴본다.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 명상인지. 명상이 따



책보따리



평화를 품은 집



컵만들기



DMZ



덕진산성



시옷책방



해마루촌

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행복하게 집중하고 행복이 느껴지면 명상이다. 연수에 참여한 모두 아마도 이틀 동안 행복 명상을 하지 않았나 싶다.

아침을 먹기 전 함께한 선생님과 함께 지지향 옆으로 난 물길을 따라 산책을 했다. 물과 함께 우거진 나무들이 더없이 상쾌했다. 아침은 렉서리하게 차와 빵과 샐러드로 먹었다.

새로운 경험은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 같다. 오늘은 김승호 소장을 만나 DMZ 탐사에 나섰다. 버스에서 김승호 소장님은 창밖에 보이는 풍경과 시설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오늘도 어제 강의만큼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시려는 열정이 전해 왔다.

오늘도 역시 민통선에 들어가는데 어제와 같이 나를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잘못된 것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콩닥콩닥했다. 말로만 듣던 DMZ에 가까이 간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하늘은 먹구름이 조금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소장님은 DMZ 숲을 탐사하면서 숲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어떤 나무가 물을 좋아하고 어떤 나무가 건조한 땅에서 자라는지 세세한 설명을 해 주셨다. DMZ 구역이라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니 자연에겐 참 다행인 일인가? 잠깐의 설명으로 숲이 눈에 들어오는 듯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여기도 해당이 되는구나 싶었다. 우리 나무, 풀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 호기심이 마구마구 일어났다. 모두 설명을 듣는 내내 눈들이 반짝반짝하고, 힘난 구름도 힘을 합해 잘 헤쳐나갔다. 이런 용기면 뭐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지만 가지 못하는 북한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다.

DMZ 탐사를 마치고 버스에 오르니 하늘이 오전 내내 참고 있던 비를 세차게 뿌리기 시작했다. 비썩이아 우리들의 '덕진 산성' 탐사를 막지 못했다. 알록달록한 우산을 쓰고 모두 비안개가 가득한 언덕을 올랐다. 나뭇잎을 두드리는 빗소리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언제 비가 오는 덕진 산성을 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모두 활기가 넘쳐났다.

굽이굽이 푸른 언덕을 지나 '덕진 산성'에 오르니 임진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왜 이곳에 산성을 쌓았는지 알 것 같다. 얼마나 지키고 싶었을까 염원하고 빌었던 뽕나무는 오늘도 역사를 안다는 듯 묵묵히 임진강을 내려다보고 있다. 북한 땅도 비안개에 쌓여 어렵풋하게 보인다. 한쪽은 태극기가, 가까운 한 곳은 인공기가 펄럭이는 곳, 참 가슴 아픈 현실이다.

덕진산성을 내려와 민통선 마을 안에 있는 부녀회 식당에서 토속적인 점심을 먹었다. 그 옛날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시골 된장 맛의 된장찌개와 나물과 고추절

임 등 시골 밥상을 한가득 받은 기분이다. 오늘도 행복한 거 맞다.

점심을 먹고 파주에 새로 문을 연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분관에 갔다. 예전에 퐁퐁 싸매놓았던 박물관이 아니다. 유물이 투명한 유리에 옛날부터 고이 간직해 왔던 모습을 오롯이 밖으로 들여내 놓고 있다. 우리 할머니가 치시던 익숙한 다듬잇돌이, 어머니가 시집와서 쓰시던 다리미가 박물관 전시실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할머니 어머니의 세월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물이 되어 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유물을 다 알 수 있는 시대, 과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유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지 조금은 궁금해지는 관람이었다. 일박이일에 마지막 일정으로 들른 소동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시옷책방'은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 책으로 다른 분야에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책방 한쪽에 제주도 할머니들이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서 책으로 출판한 그림책을 보게 되었다. 그림책 속에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책을 들고 웃고 계셨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책. 언젠가는 나도 나의 이야기를 쓴 책을 이렇게 들고 웃고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희망이라는 낱말을 살며시 가슴에 품었다. 가슴이 설레었다.

일박이일의 일정을 끝내고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은 처음에 본 어설픈 모습이 아니었다. 모두 가슴에 값진 무언가를 하나씩 안고 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나도 그랬으니까. 다음에 또 아름다운 인연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나도 익숙한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 왔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출판사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목선철(국민서관 본부장)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저는 21년째 어린이책을 만들고 알리는 일을 하는 편집자입니다. 대략 550여 권의 동화책과 그림책들을 만들었습니다. 어린이책을 만드는 일은 늘 내일을 준비하는 일이고,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 보람도 있고, 행복을 찾기도 쉬운 일입니다. 운 좋게도 저는 이 행복한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렇듯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요. 언젠가부터 저는 또 다른 일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날 했던 기타와 노래를 다시 하게 됐고, 2018년에 정식으로 작곡가가 됐고, 우연한 기회에 작은 시집도 냈습니다. 그렇게 붙여진 별명이 '포엠싱어 송에디터'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정말 '새옹지마', '호사다마'인가 봅니다. 작년 어린이날 뇌경색으로 쓰러져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두통과 우측 마비, 단기기억 상실 등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린 시련은 저를 아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 다량의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먹고 있으니 그 양이 꽤 많지요. 그래도 누워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심기일전하여 예전에 늘 그랬던 것처럼 저녁을 먹고 만 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20여 분을 걸으니 엄청난 두통이 밀려와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때 제 옆으로 비틀비틀 술에 취해 걸으며 무척 신이 나서 통화하는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그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는데 주저앉아 있는 저 자신이 너무 서럽고 싫어지더라고요. 난 이제껏 단 한 순간도 저렇게 비틀거린 적이 없었는데 하는 억울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도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이 좋지 못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 즉 회복탄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몸이 아픈 덕분에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저만의 몇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만세 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온 자신을 위해 만세를 부르는 거죠. 'OOO 만세!' 동작도 크게, 아주 큰 소리로 말입니다.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기'입니다. 나가서 무작정 걷다 보면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루에 하나씩 '감사한 것 찾기'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은 늘 작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행복은 사전적으로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으로 흐릿한 상태'라고 합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느끼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어느 정도 충족된 상황이라면 더 좋겠지요.

멋진 말 제조기인 곰돌이 푸의 말이 새삼 생각이 납니다.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You can be happy everyday. But there are happy things everyday)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 행복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 책 열심히 만들고, 더 많은 행복을 노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도넷 소식

2022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22년 3월 15일 학도넷 소식지 발간(총권 56호)
- 2022년 3월~5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 2022 어린이문학주간 <아동문학 스테이지> 협력사업
- 2022년 4월 25일~5월 6일 작가들이 보내는 따뜻한 손글씨 인사 나눔
- 2022년 8월 5일~6일 학도넷 여름방학 사서연수

신입회원 (2022년 3월~2022년 8월)

정회원 : 유영미, 박은영 이소윤 최민웅 차희주 양현주
 준회원 : 임지연 이영애 어영숙
 웹회원 : 박미라 신선영 유혜정 김미옥 남경숙 이미옥

회비 및 후원내역 (2022년 3월~2022년 8월)

- 정회원 회비**
- 매월 3천원 : 고은 김미영 김미향 김지순 남경화 박규리 박영혜 박정미 박정민 박종숙 박현주 신수인 신재희 오계화 윤정숙 이영인 이유나 이은옥 이인문 이재경 조성우 천진아 최선옥 최선희 최유미 함정희 황희진
 - 매월 5천원 : 강정미 곽정은 구미숙 권도경 김미숙 김명희 김경진 김경하 김누리 김대경 김동현 김리라 김명선 김명화 김선영 김수연 김수현 김심함 김연옥 김영신 김유진 김윤주 김은승 김은영 김은하 김정숙 김정혜 김하나 남규조 마민희 문수지 문원림 박미영 박선미 박은하 박준섭 박현숙 박효정 변향희 백경숙 백연주 서미혜 서정원 선보배 성주영 성미경 송경영 송명원 송숙영 송윤서 송혜영 신영숙 신은미 신정임 신정화 신지연 안경애 안희정 양은주 염혜은 염효경 유영미 유영숙 유정원 윤남미 윤소영 이금화 이규선 이남지 이미순 이선화 이수경 이영선 이유정 이은정 이은혜 이주영 이현 이현애 이혜진 임경순 임재연 임지은 장부자 정명하 정미순 정수연 정영희 정은희 정은희 정해선 정해연 주상태 진은진 차진미 채재현 최문희 최은규 하은경 한은미 허현주 홍용란 황동옥 황순영 허지은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고무신 권은수 권향미 김경숙 김경숙(보령)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영진 김정윤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관악) 김태현 김효숙 라순희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선옥 박 샘 박영옥 박정혜 변영이 백화현 불어라봄 바람 신형란 안미정 안은덕 오현애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문숙 이민수 이소연 이영주 이재선 이찬미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휘 조은영 조의래 조현정 최진영 한명숙 허경림 황봉희
 - 매월 2만원 : 박은숙
 - 매월 3만원 : 북극곰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매월 5만원 : 이루리
-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민형(2천) 김송요(2천) 김송현(2천) 박소정(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관형(1천) 이제희(2천)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WARRIORS전사들(가람어린이)/고릴라와 너구리(북극곰)/고민책방(한림출판사)/고양이 의사 로베르트(가람어린이)/구름은 어떻게 구름이 될까?(북극곰)/굿바이 바이러스, 굿바이 코로나(맑은소리맑은나라)/권은중의 청소년한국사 특강(철수와 영희)/그리고 펴킨맨이 나타났다(비룡소)/까먹어도 될까요(창비)/꼬마 유령 아치와 오싹 오싹요리(가람어린이)/꼭꼭장에 눌러 오세요(미운오리새끼)(가람어린이)/나는 기억할 거야(사계절)/나에게 진짜 보물이 있다면(우리학교)/나와 너 그리고 우주(도토리숲)/나의 사랑스러운 할머니(북극곰)/나의 오두막(봄별)/날마다 만원이 생긴다면(별숲)/내 몸이 신호를 보내요(우리학교)/내 비밀 통로(국민서관)/내 친구 거미(북극곰)/내 케이크 어디 갔지?(북극곰)/내가 예쁘다고?(봄별)/내가 진짜 원하는 것(별숲)/너와 나의 세미콜론(라임)/도깨비가 슬금슬금(북극곰)/독수리의 오시오 고민 상담소(봄별)/독수리의 오시오 고민상담소(봄별)/동물과 말하는 아이 릴리4(가람어린이)/동물과 말하는 아이 릴리5(가람어린이)/돼지왕국(별숲)/등실이네 딱집(비룡소)/뚝뚝, 저는 이웃이에요(우리학교)/뚝뚝뚝, 야옹이교실(한림출판사)/라운 마르호의 아이들(봄별)/마법젤리(킨더랜드)/마일로가 상상한 세상

(북극곰)/마트로시카(사계절)/만물박사 테리덴톤의 놀랍고 신기하고 빵 터지는 지구의 모든지식(별숲)/무무무 무지개 택배! 뉘바권주소(우리학교)/미래에서 온 아이(서유재)/뱀파이어 시스터 밤의 규칙(가람어린이)/서생크 탈출(글로벌)/선생님, 유해 물질이 뭐예요?(철수와 영희)/선생님, 인류세가 뭐예요?(철수와 영희)/선생님, 채식이 뭐예요?(철수와 영희)/선생님, 평화통일이 뭐예요?(철수와 영희)/선우와 나무꾼(봄별)/세계의 상. 세상을 바꾼 아름다운 가치(봄별)/소금쟁이 잠수부 동동(북극곰)/수평선 먼 섬으로 나비가 팔랑팔랑(도토리숲)/술웨(도토리숲)/슈퍼맨 할아버지(북극곰)/시대를 저격하라(푸른숲주니어)/신통방통 호랑이 발톱(별숲)/심해동물 대탐험(별숲)/안돼 지지, 안돼(킨더랜드)/아누시 코르차크(도토리숲)/언제나 네 곁에 있어(도토리숲)/열두 달 한뼉 툇밭(보리)/우리 집 식탁이 사라졌어요(우리학교)/우리 집에 북극곰이 살아요!(한림출판사)/우리는 서로의 그림자입니다(호호아)/우주로 카운트다운(우리학교)/우주 지옥(글로벌)/웅덩이를 건너는 방범(별숲)/이 색 다 바나나(봄별)/이 옥용 청소년 시집 -+(도토리숲)/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그레이트북스)/임금님귀는 토끼 귀(북극곰)/잘 모르던 아이(라임)/잠깐만 버튼(킨더랜드)/재활용 지구(푸른숲주니어)/주사위놀이(상상)/짱깨주의 탄생(보리)/척화나 개화나 조선의 마지막 승부(푸른숲주니어)/초능력 엄마(한림출판사)/카멜레온의 빙수가게(미운오리새끼)/케빈과 민트 우주의 나인(푸른숲주니어)/콩나물(반달)/토마스 신상파일(라임)/패션걸의 패션스쿨(서유재)/평화학(철수와 영희)/핑크꼬리 사랑이(가람어린이)/허니보이 비(라임)/환상의 라이벌(서유재)/후비적 후비적(북극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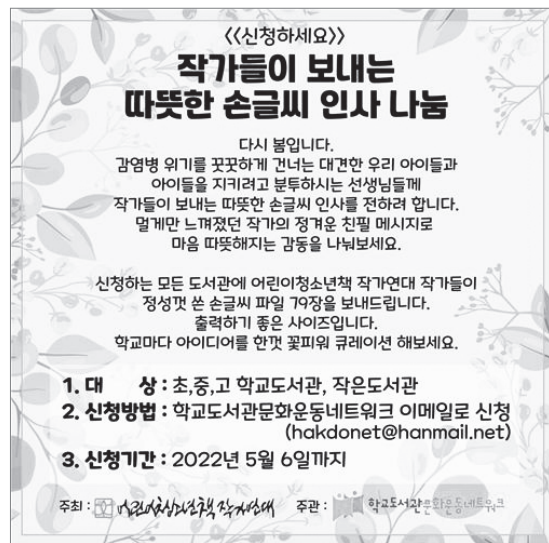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등우(어린이도서관 맨발등우)/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 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 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 계간 고래가숨쉬는 도서관/ 계간 우리교육/ 월간 개똥이네 놀이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소식지/ 월간 학교도서관저널(사)어린이도서관연구회 동화읽는어른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계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작가들이 보내는 따뜻한 손글씨 인사나눔 행사했습니다.

2022년 4월 25일~5월 6일 전국의 학교도서관 600여 곳에서 신청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도넷 2022 여름방학 사서연수 했습니다.

평화, 그러다. 만나다 <파주지역 DMZ 평화기행>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때 : 2022년 8월 5일(금)~6일(토)

코로나 시국을 슬기롭게 이겨내신 학교도서관 사서선생님들을 응원하면서 그동안 비대면으로 만나다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1박 2일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반갑게 손 마주 잡고 반전과 평화, 그리고 공존의 현장을 찾아가 평화를 이야기했습니다.

- (1) 제노사이드, 그 흔적을 넘어 평화를 이야기한다.
- (2) DMZ원시림 생태탐사로 공존을 이야기한다.
- (3) 거대한 기억공간, 도서관을 품고 나의 평화를 이야기하다.

●강사 : 명연파 (파주 평화물품은집 집장)
 김성호 (DMZ생태연구소장)
 박현주(의정부청룡초등학교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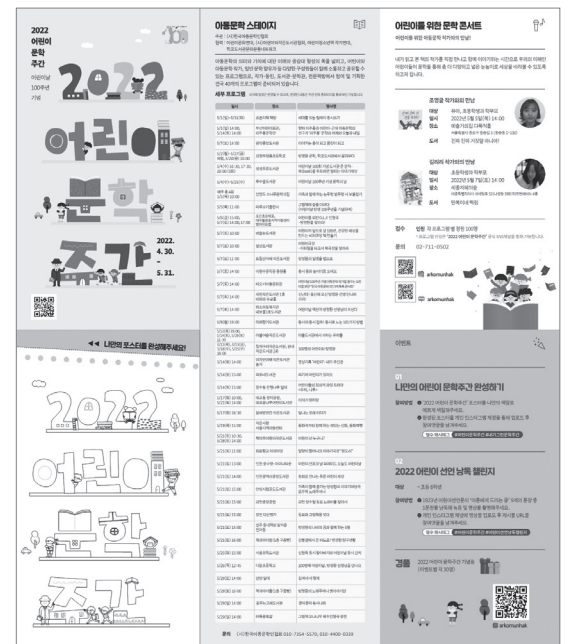
●연수 일정

일시	8월 5일(금)	일시	8월 6일(토)
주제	평화, 그러다, 쉬다	주제	평화, 만나다, 함께, 살다.
09:30	합정역 1번 출구 대절버스 출발	07:00~12:00	서부 민통선 생태탐사 (덕진산성, 초평도, DMZ원시림) -김성호(DMZ생태연구소 소장)
11:00~12:00	파주 평화를 품은집 평물집 만나기 (도서관, 전서관, 책방)	12:30~13:30	점심 (민통선마을 부녀회식당)
12:30~14:00	해마루촌 방문 / 점심	14:00~16:00	민속박물관 파주분관 방문 시뮬레이션
14:00~15:30	어린이문학으로 만나는 제노사이드와 평화 -명연파(평화를 품은집 집장)	16:00~17:00	합정역 해산
16:00~19:00	지지향 체크인 저녁 식사 등 휴식		
19:00~20:30	DMZ의 생태와 평화적 공존 김성호(DMZ생태연구소장)		
21:00~	-지혜의 숲 밤생 탐색 -세상에 하나뿐인 내 평화집 만들기 박현주(의정부청룡초등학교 사서)		

●여름연수 후원도서

- 굿바이 바이러스, 굿바이 코로나(맑은소리맑은나라) 100권
- 내 비밀 통로(국민서관) 25권
- 이토록 불편한 바이러스(그레이트북스) 25권

2022년 3월~5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기념 2022 어린이문학주간 <아동문학 스테이지> 협력사업 함께 했습니다.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